

# 왜 붓다는 배가 앙상하거나 뚱뚱할까?

## 해외불교칼럼

동양의 전통적인 불교국가에선 일반상이 이 전법이 뒤늦은 서구사회에선 얘기꺼리가 되기도 한다. 다음은 미국의 한 어린 불자가 불교공부방사이트에 올린 질문인데, 초롱초롱 호기심어린 눈망울의 우리 어린 불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들은 붓다라 하면 명상하고 가르침을 배우시는 큰스승 붓다의 모습을 얼른 떠올리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는 배가 푹 튀어나오고 깔깔대는 모습이 떠오른대요. 고행하시느라 온몸의 뼈가 앙상한 붓다가 맞나요? 아니면 뚱뚱하고 웃으시는 붓다가 맞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에 대한 사이버 지도법사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웃는 붓다’ 또는 소불(笑佛)은 사키아무니 붓다가 아니라 10세기 경 중국에 살았던 선승 정응 대사(定應大師)의 별칭이다. 치에치(此)란 이름과 몇몇 호칭을 가진 그는 지금의 절강성 영파 출생이다. 육중한 체구에 호방한 웃음의 복덕원만(福德圓滿)의 상호를 지닌 그는 늘 커다란 형광자루를 메고 다니며 보따리 스님, 곧 부다이(布袋) 화상이라 불렸다. 그 보따리에는 애타게 졸 사랑 등 먹을거리들도 늘 담겨있었다. 지금도 그는 대개 애타고 어울리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지팡이를 뱉 삼아 여기저기 떠돌던 그는 주는 대로 받아먹고 길흉과 날씨 등을 짚어



보따리 가득 먹을거리를 담아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는 부다이 화상.

내곤 했다. 마침내 그는 행복, 자비, 부의 상징이 되고 가난하고 힘없고 어린 중생을 돌봐주는 수호불로 자리매김을 한다. 오늘날에도 중국의 사찰은 물론 대철호텔과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터러 그의 조상(彫像)을 볼 수 있다. 그 불룩한 배를 손으로 문지르면

함이라.’ 그는 이 계승을 남기고 반석 위에 정좌하여 입적했다. 그런데 보따리 화상의 또 다른 버전도 있다. 세존 당시 열여덟 아홉 중 앙기다의 얘기다. 그는 인도 사람들을 살상하던 독사들을 잡아 독(毒牙)을 빼고 놓아주어 자비와 불살생의 공덕으로 보디에

큰 행운과 재복이 찾아온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불가의 가르침보다는 민간설화에 서 유래한다.

또 그를 선불교의 심우도(壽牛圖) 중 골장면과 연관을 짓기도 한다. 대각에 이른 선사가 저자거리로 들어가 선남선녀들에게 깨우친 바를 펼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도교에선 풍요의 상징, 그리고 일본의 신도에선 칠복신(七福神) 중 하나인 호테이로 받아들인다. 그는 죽기에 앞서 자신이 미륵보살의 현신이라 말했다. ‘미륵 참 미륵이여, 천백억의 몸으로 나뉘어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니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

이르렀다. 그 역시 육중한 몸집에 독사를 주워 담은 보따리를 들러 매고 깔깔대며 떠돌았다.

태국엔 또 다른 버전이 있다. 세존 당시 아홉 중 프라상가차이는 불법을 누구나 쉽게 알아들도록 펼쳐 세존의 찬사를 받았다. 그런 그에게 회한한 고인이 있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치면, ‘너무 잘생겨서 죄송합니다’란 웃지 못할 사연이었다. 슬한 여인들이 그의 주변을 줄곧 살랑대고 심지어 같은 남자들마저 집적대 정도였다. 출중한 외모가 수행생활에 큰 방해가 되자 그는 자신의 외관을 바꾸기로 작심했다.

그래서 삼겹살다이어트를 한 건지 단갑술을 쓴 건지 모르되, 그는 이내 배와 턱이 축 처진 흉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부다이(布袋)는 사팔이고 태국의 프라상가차이는 곱슬머리란 점은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이 소불(the Laughing Buddha)의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소불을 영역표기로 ‘the Smiling Buddha’라 하면 얘기가 딱 달라진다. 유엔안보리 5개 상임국가 이외에 최초로 인도도 핵실험에 성공했던 1974년, 인도의 최고위층은 기존핵보유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이를 극비암호명으로 사용했다.

왜 하필 붓다의 미소를 암호명으로 쓴 걸까? 핵보유국 너희들 모두 까발려 봐야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까? 그나저나 인도인들의 유머감각도 그들의 과학기술만 치 국제수준급이다.

출처: O'brien CLM, The Laughing Buddha  
번역: 성휴 스님

## “모든 중생은 존재이유가 있다”

### ☆월 스타 불심도 스타 | 엘리스 워커 ④

그 후 1966년 그녀는 뉴욕시 북부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듬해엔 온갖 시비와 압력을 재기고 유대계 백인 민권변호사인 앨빈 루벨탈과 결혼한다. 이는 그들의 주거지인 미시시피 주에서 당시 유일한 흑백혼인 사례다.

이어 그녀는 시와 단편소설 등의 장르로 본격적 창작활동에 들어선다. 그 대부분 미국의 당면 사회문제인 폭력, 강간, 인종차별 등을 다룬 현실고발성 작품들이다. 결혼 후 얼마간 심장 안정을 찾은 그녀는 아이가 사산되자 또다시 휘청한다.

하지만 그 못잡은 일대총궤가 그녀를 기다린다. 이때 전 앨빈 워커의 암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해당한 것이다. 앨빈 워커의 과격분리선보다 킹 목사의 참여적 저항노선에 기울었던 그녀로서 분노와 공허감이 극

그들이 지핀 민권운동의 불꽃은 ‘블랙 파워’, 흑표당(Black Panthers Party) 등 간혹 과격양상을 띤다. 그러나 다른 한편, 흑인들의 조용한 내밀한 투쟁과 결속한다. 이는 그들의 주저지인 미시시피 주에서 당시 유일한 흑백혼인 사례다.

그리고 40여년 뒤인 지금 Barack Obama는 첫 흑인 대통령을 뽑는다. 이는 인류사상 가장 고요하고 무서운 혁명의 전야일지도 모른다.

남아프리카의 잔혹한 흑백분리정책에도 마침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말았듯,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어차피 새벽은 오는 것이다. 아무튼 미국의 민권운동 격동기는 존 내란적인 폭력의 계절이었다. 그 와중에 엘리스 워커는 줄곧 집필에 몰두한다. 만일 그녀가 은사들의 충고를 외면하고 정치사회운동에 머물렀다면 그녀의 문학적 재능은 빛을 못보고 스러졌을지 모른다. 그녀는 첫

### 미시시피 주 최초 흑백혼인 사례 기록

### ‘혁명하는 페튜니아’로 전미 도서대상

를 그 킵 목사는 신학교에서 불교철학과 간디

의 비폭력사상에 심취하며 보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다. 그 후 흑인투표권 요구 등으로 수차례 법정에 선다. 1964년 35세로 역대 최연소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그는 탁났한 선사를 차기수상후보로 추천할 만치 불교철학에 공감대를 지닌다. 그의 민권운동은 흑인은 물론 소수민족, 노동자 및 백인 빈곤층까지 확산되고 베트남 반전운동으로 이어진다.

그가 1968년 총격으로 사망하자 미국의 63개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하고 그의 장례식에는 15만 명이 운집한다. 그를 죽인 제임스 얼 레이는 몇 년 뒤 미국 중앙정보부가 자신에게 암살을 교사했다고 실토했다. 앨빈 워커와 마틴 루터 킹, 그 두 흑인 지도자는 1920년대 출생으로 사십대가 되기 전에 피살된다. 무슬림인 앨빈 워커는 연설 도중, 침례교인인 킹 목사는 연설 다음날 피격된다.

앨빈 워커는 뉴욕 할렘가의 말바닥 생활을 겪고 킹 목사는 안정적 교육환경을 거친다. 위대한 사상가가 자 실천운동가인 두 사람이 지닌 공통점은 인간애와 자기 확신이었다.

린 소설 <그 랜디>의 제3의 시집 <언제>가 이어 삼대 가정폭

력을 그 킵 목사는 신학교에서 불교철학과 간디의 비폭력사상에 심취하며 보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다. 그 후 흑인투표권 요구 등으로 수차례 법정에 선다. 1964년 35세로 역대 최연소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그는 탁났한 선사를 차기수상후보로 추천할 만치 불교철학에 공감대를 지닌다. 그의 민권운동은 흑인은 물론 소수민족, 노동자 및 백인 빈곤층까지 확산되고 베트남 반전운동으로 이어진다.

그 후 잠시 여성운동전문지인 ‘미즈’의 편집장도 역임한 그녀는 첫 남편과 헤어지고 동료 겸 친구인 로버트 앨빈과 새 사랑을 키워간다. 그녀는 다섯 권의 시집 가운데 <혁명하는 페튜니아>로 1973년 전미 도서대상을 수상하고, <컬러 퍼플> <메디언> <여인들의 진전> 등 다섯 권의 소설을 내놓는다. 그 중 <컬러 퍼플>의 밑그림이 완성되어 갈 즈음 엘리스 워커 보살님이 남긴 삼라만상의 존재이유에 관한 법문이다. ‘모든 중생은 나름대로 생겨난 까닭이 있으니, 동물이 사람을 위해 생겨나지 않았듯, 흑인도 백인을 위해 생겨나지 않았고, 여자 또한 남자를 위해 생겨나지 않았다.’

성휴 스님

##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That is not a sin. It's only a mistake.”

###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저 착각일 뿐이니까요.”

A young lady prostrated herself down at the golden Buddha in the grand Dharma Hall and pleaded, “Please help me, Lord Buddha, for I have sinned.” The master came to ask her, “What is it, Bosal-ny-m?” “Venerable, sir, I have committed the sin of vanity. I always gaze at myself in the mirror and tell myself how beautiful I am.” He just went away but later sent her text messages by cell-phone, “Bosal-ny-m, no worry! That



is not a sin. It's only a mistake.”

한 아가씨가 대중전 금중 불전에 앞드려 간절히 빌었다. “부처님, 저를 굶

어 살려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녀를 본 스님이 물었다. “보살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가요?” 스님, 제가 그만 허영의 죄를 짓고 말았어요. 저는 만발 거울속의 저를 들여다보면서 어머, 난 어쩔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스님은 그냥 지나가더니 나중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보살님, 염려마세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저 착각이니까요.”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 가짜 승려행사 일당 검거 미화 2만 달러 사취 들들

중국본토에서 타이완으로 입국해 승려 행세를 하며 금품을 사취하던 일당 12명이 7월 27일 타이완당국에 검거됐다. 사찰에 황색승복과 바탕을 착용한 이들은 타이완 국제공항(桃園國際機場)에서 출국직전에 체포되어 29일 언론에 공개됐다.

타이완 국가이민국은 중국남방의 선천(深圳)에서 가구전시회 참가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이들이 도착 즉시 승려로 위장, 사찰의 건설현장 등 사진을 보여주며 미화 약 2만 달러를 사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도 유사한 조직적 국제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일당은 타이완법정에 회부된 후 중국으로 추방되며 재입국이 영구금지된다.

출처: BNT

# (사) 한국결혼상담소협회에서 최첨단 맞선 프로그램 출시!



사단법인 한국결혼상담소협회 고문 해철 대성사 주지스님

### 스님출연 TV프로그램

- KBS 아침 마당 VJ특공대 무한지대Q
- MBC 화제집중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6mm 세상담현 손석희의 시선집중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생방송 투데이
- YTN 전국 네트워크
- 불교TV 아름다운 사람들
- 불교방송 BBS 초대석
- 충북방송 충북, 충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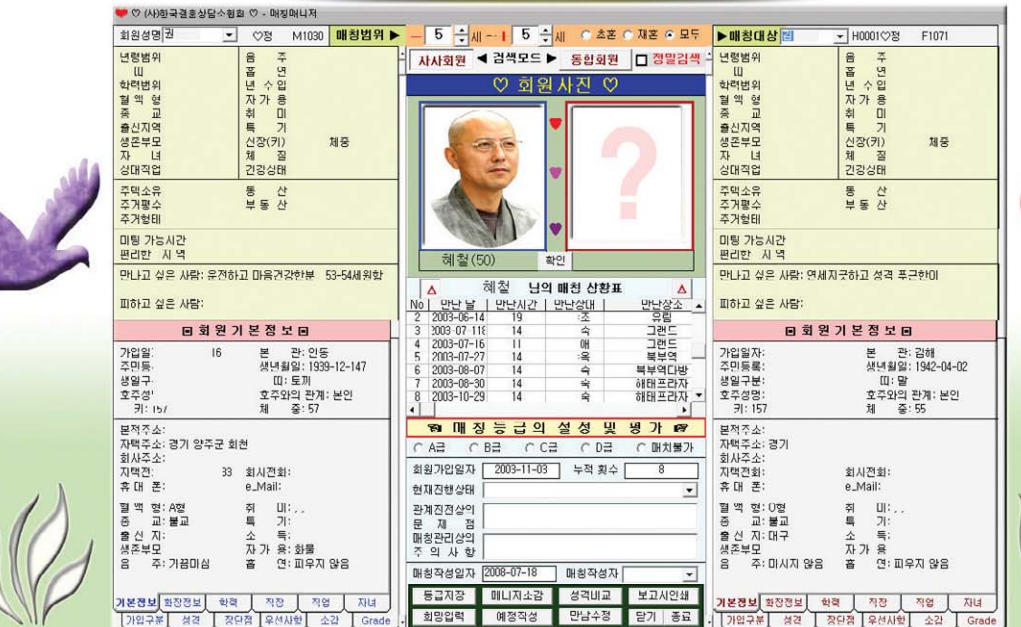
국내, 국제 결혼정보업체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WedManager 2008**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 ### 프로그램의 기능
- 계약관리
  - 회원관리
  - 희망정보관리
  - 회원매칭관리
  - 성혼자관리
  - 물량회원관리
  - 주소록관리
  - 매니저관리
  - 홈페이지정보관리
  - 전국결혼상담소 연결기능 등!

주문 및 전화문의

**043-732-5560**  
**010-9422-8453**

뉴페이스결혼소프트웨어



News !!!

매일 100개 이상의 공유 프로필이 전국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단 한개만 입력해두셔도 맞선 요청 전화가 걸려 옵니다!!!